

광양, 농산물 판로 확보 '로컬푸드' 사업 본격화

'직거래활성화사업자' 선정 국비 11억 받아 직매장·공동작업장 등 시설물 설치 추진

광양시가 1인 및 맞벌이 가구 확대 등 가구형태 변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대처하고 소량·다품목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축산

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13년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활성화사업자 선정 공모사업에 광양원에농협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1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동작업장 등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시설원에농협의 발달로 다양한 채소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포스코 등 대기업이 산재하고 있어 광양이 로컬푸드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함께 꾸러미 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수주 및 발주, 대금 결제, 물류 등 경영지

원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출하·판매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량·다품목 농산물 생산 영세농들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도·농간 새로운 유형의 생생한 직거래 유통체계 정착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초기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부재와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산농가의 조직화,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등에 나설 것"이라며 "소량·다품목 형태 농산물의 연중 계약재배를 유도하면서 기존의 학교급식 차량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유통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시장 관용차, 하이브리드로 교체

김중석 여수시장이 관용차를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교체했다. <사진> 여수시는 15일 "지난달 주문한 소나타 하이브리드(1999cc)의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14일 마치고, 16일부터 여수시장 관용차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입한 소나타하이브리드는 공인복합연비가 l 당 16.8km로 연간 600만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유해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형차 대신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중형차로 구입해 차량 구입비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당초 김중석 여수시장은 민선 5기 출범 직후 시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용차매각을 추진했으나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내구연한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을 미뤘다. 한편 여수시는 2005년 구입해 시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해 온 체어맨(2799cc)은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섬진강 기차마을서 구곡순담 장수벨트 회혼례 한마당 개최

곡성군은 15일 "장수마을을 기념하기 위해 '2013 구곡순담 장수벨트 회혼례 한마당'을 오는 25일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혼례는 혼인한 부부의 60돌을 부부가 혼례의 복장을 갖추고 혼례의식을 다시 치르는 것으로 자손들의 현수와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기념잔치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회혼부부 8쌍을 초청해 전통 혼례를 거행한다. 또 시부모 오래 모신 며느리, 장한 아버이 표창과 함께 건강·장수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 노인잔치, 어르신 장기자랑, 축하공연도 펼친다. 곡성군은 지난 13일 구례·곡성·순창·담양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갖기도 했다./곡성=김계희기자 kjkim@



'수학여행 추억 만들기' 철길걷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곡성으로 수학여행을 온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차마을 철길을 걷고 있다. 이 중 1학년생 30여명은 곡성군의 지정장애인 시설인 곡성삼강원을 찾아 봉사하기도 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곡성으로 수학여행을 온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차마을 철길을 걷고 있다. 이 중 1학년생 30여명은 곡성군의 지정장애인 시설인 곡성삼강원을 찾아 봉사하기도 했다. <곡성군 제공>

구례, 1기 전통시장 상인대학 개강

구례군이 15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1기 상인대학이 문을 열었다. 군은 "상인대학은 오는 7월 22일까지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모두 40시간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로부터의 고객 서비스, 의식 혁신, 바람직한 상술기법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장경영진흥원 인강용 책임교수(호남대 경영학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구례 5일시장과 상설시장 상인 70여 명이 참가, 배움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보였다. 상인대학을 주관하는 시장경영진 흥원 정석연 원장은 축사에서 "올해 110개의 전통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조직과 지자체 등의 지원은 물론, 상인들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보성서 '녹차향연'

다향제 개막.. 19일까지 다신제·명차대회 열려

제39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가 지난 14일 주민과 관광객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티월드 챔피언십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개막식은 박세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군민의 상 시상과 김중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백환기 의정연수원 교수에 대한 명예군민패 수여, 사단법인 예명원 손민영 이사장과 정영근 가수 홍보대사 위촉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부터 개막식 시간을 야간으로 옮기고 주요 내빈 인사 및 축하 등을 모두 생략하는 등

행사 의연을 간소화하는 한편 왕실 전통혼례 복식 패션쇼 등 화려한 개막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녹차대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라는 주제로 15일 다신제와 한·중·일 화장도 도자 국제학술포럼포럼을 시작으로 16일 차 맛내기, 차 맛내기, 다례시연을 테마로 열리는 제2회 보성아트페스티벌과 한국 근·현대 차인전, 17일 한·중·일 명차 선정대회와 전국 학생 차예결 경연대회, 무야차회, 18일 녹차 학교급식 및 차생활 활성화 워크숍 등이 이어진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북

남원 '국악의 성지' 탐방객 몰린다

프로그램 다양화 수학여행 체험장 각광

전북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가 체험관광지로 알려지면서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15일 "지리산둘레길 2코스에 자리한 국악의 성지가 인기를 끌면서 체험·탐방객이 몰려 현재 1만1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국악의 성지는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국악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국악의 성지가 국악체험 수학여행지로 알려지면서 지난달에만 12개 학교 2200여명이 체험 학습을 받고 돌아갔다. 이달에도 서울 남강중 학생 200여명이 수

학여행으로 국악공연을 관람했고 대전 범동중 학생 450여명이 현장체험학습으로 국악의 성지에서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악체험은 매주 화~토요일 청소년·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학습은 소리꾼의 구성진 목소리에 맞춰 판소리 따라 배우기, 풍물, 미니어저 국악기 제작 체험, 무용체험 등을 갖는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을 펼쳐 관광객이 쉽게 국악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101년만의 귀향 '전주물꼬리풀'

멸종위기 야생식물종인 '전주물꼬리풀'이 전주에서 처음 발견된 지 101년 만에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다. '전주물꼬리풀'은 1912년 일본 식물학자가 전주에서 발견, 세상에 알려졌으며, '전주'라는 지명을 단 유일할 식물이다. 이 풀의 키는 30~50cm, 개화시기는 8~10월이며 연한 홍자색 꽃이 일품이다. '전주물꼬리풀'은 1980년대 중반 제주도 한라산태생에서 소량 자생하던 종이 발견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 인공증식에 성공하면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됐다. <전주시 제공>

멸종위기 야생식물종인 '전주물꼬리풀'이 전주에서 처음 발견된 지 101년 만에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다. '전주물꼬리풀'은 1912년 일본 식물학자가 전주에서 발견, 세상에 알려졌으며, '전주'라는 지명을 단 유일할 식물이다. 이 풀의 키는 30~50cm, 개화시기는 8~10월이며 연한 홍자색 꽃이 일품이다. '전주물꼬리풀'은 1980년대 중반 제주도 한라산태생에서 소량 자생하던 종이 발견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 인공증식에 성공하면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됐다. <전주시 제공>

고창, '소나무 가로수' 인기 좋네

고창군이 지난 2010년부터 시행중인 '소나무 가로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고풍스럽고 한국적인 경관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낙엽이 없는데다 간판을 가릴 일도 없어 외지인은 물론 주변 상인들로부터도 환영받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까지 모두 7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창읍 석교리에서 아산면 대동리까지 소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진> 소나무 가로수의 수령은 40년에서 50년 이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나무 모양이 좋아지고 유지 관리비보다 다른 가로수에 비해 적게 든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



전주~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공급

상관면 7월·이서면 하반기
전북 완주군은 15일 "전주시와 경계인 상관면과 이서면 등에 도시가스를 차레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10억원의 들여 전주 대성동~상관면을 잇는 7.7km의 관로를 설치, 이르면 7월부터 상관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했다. 또 전주혁신도시와 연계해 2014년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충하기로 한 이서면도 공급시기를 예초보다 1년 앞당겨 올해 하반기 남양사(비어파트)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www.kwangju.co.kr>

전지나 벌목할 필요도 없으며, 낙엽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경우도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인근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4)씨는 "다른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이 거리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가로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해리 구간까지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고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

단신

남원-전기공사 순창지사, 귀농인 지원 협약

남원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 순창지사는 지난 14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 순창지사는 귀농귀촌가구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구입 등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장학금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귀농귀촌 자녀 문화유적지 등 섬진지 견학 버스투어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남원시는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개발과 농촌의 어려운 가정들 도울 방침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 '농기계 고장 신고제' 운영

순창군이 15일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고장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모내기 등 바쁜 영농철을 맞아 신속한 농기계 수리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농기계 고장 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비싼 농기계 구입비로 인해 새로운 농기계 구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농가 현실에서 농기계 고장신고제는 농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가동

정읍시가 15일 "오는 10월말까지 평일 오후 8시와 9시 2차례씩, 공휴일과 주말은 주간 오후 2·5시, 8·9시 4차례씩(1회당 30여분) 국립공원 내장산 초입 내장산 워터파크 내 음악분수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고 인기가요와 귀에 익숙한

팝송과 영화음악,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의 클래식 등 60여곡의 다양한 음악에 맞춰 고사분수, 하트분수, 발레분수 등 모두 14종의 환상적인 분수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정기휴일인 매주 월요일과 강릉이나 우천 시에는 가동하지 않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

고창, 석가탄신일 선운사 무료 개방

고창군은 오는 17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고창의 대표적 관광 명소 중 하나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주지 법만스님)를 찾는 불교신자와 관광객을 위해 시설 사용료 및 공원입장료 없이 무료 개방한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

선운사는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새벽 4시 예불을 시작으로 연등 달기에 이어 10시 봉축법요식, 오후 2시 자비나눔 1080배(만세무), 저녁 7시 탐돌이, 9시 회향 등의 행사를 갖는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